

"엮히고 뭉쳐서 하나를 이룹니다"



장명호(사우회장)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폭염으로 연이어 힘든 여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사우회원님들과는 창립기념 행사와 연말 송년회 때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 못 오신 회원님들은 놓치게 되어 지면을 통해서나마 사우회 소식도 전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고 싶어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 사우회 업무 중 특기할 것은 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사우회가 입주해 있는 정동 MBC 건물(지금은 경향신문)은 건축한지 53

년이 넘어서 냉난방은 물론 방음과 배선 등 손볼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사의 도움을 받아 바닥공사, 방음창 설치, 천정과 벽 도배 그리고 일부 가구를 교체하여 산뜻한 사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바둑, 한문공부, 캘리그래피 등 사우회 실내 동호회 활동도 덩달아 활발해졌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사우회 재정 압박이 커질 것을 대비해 올 상반기에 사무처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근무형태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경직성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주요 수입원인 보험업무는 20여년 동안 외부인력에 의존해온 구조를 바꿔 사무처장이 보험 관련 최상위 자격증을 직접 취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현직에 있을 때 재무, 감사 업무를 두루 거친 능력있는 사우회원을 어렵게 영입하여 사우회 업무가 한결 정비되고 내실도 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입회원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우회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사우회 창립 25년인 2015년에 1,415명이던 회원이 올 상반기에는 휴면회원 포함 1,432명으로 8년 동안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2년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령 회원의 타계와 신입 회원의 가입저조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10여년 동안 MBC는 사원들 간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고 일상화되어 구성원들이 'MBC맨'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우회라는 공간에서 조우하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뜻밖의 얘기도 들립니다.

아무쪼록 'MBC사우회'라는 큰 공간에서 서로의 반목과 혐오를 넘어 선후배 모두 'MBC맨'이라는 자긍심을 당당하게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인사동에서 상암동까지 62년간 꺾끗이 이어온 MBC의 시간 속에

는 국민이 힘들 때 친구가 돼주고 어려울 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따뜻한 이웃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문화방송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한두 해에 이룬 성과물이나 몇몇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구축된 누각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우회원님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이뤄낸 결과였다고 자부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우회 한문공부방에서는 장자莊子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제물론齊物論편에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엮히고 뭉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구절을 소개하면서 인사에 같음합니다.

若勝我 我不若勝
若果是也 我果非也邪
“그대가 나를 이기고 내가 그대를 이기지 못했다면 그대는 참으로 옳고 나는 참으로 그르단 말인가”

MBC
원하는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콘텐츠 플랫폼

MBC RADIO
내 곁의 작은 라디오,
스마트 라디오

소통 플랫폼

iMBC
www.imbc.com
Global Content & Platform Leader

COEX 9T09 CUBE
대한민국 옥외 광고의 메카, 코엑스

SRT
전국을 커버하는 교통광고의 중심

iMBC 연예
생생한 현장 &
똑똑한 뉴스

미디어 플랫폼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김소영(보도)
1995년 보도국 입사. 편집부, 사회부장 등 근무. 2019년 퇴사. 국민통합위원회(현)



김세홍(편제)
1992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센터 국장 등 근무. 2023년 퇴사.



오규택(편제)
1987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센터 국장 등 근무. 2022년 퇴사.



홍성기(기술)
1987년 기술국 입사. 디지털기술국 부국장, TV송출국 국장 등 근무. 2021년 퇴사.

MBC소식

▶MBC '연인' 14.4%로 시청률 기록 경신

'닐슨코리아' 조사에서 9월 2일 방송된 드라마 '연인'(연출 김성용 이한준 천수진) 10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2%, 수도권 기준 시청률 11.5%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4.4%까지 치솟았다.

8월 4일 첫 방송된 '연인'은 9월 2일 10회로 '파트1'을 마무리했다. '연인' 파트1은 병자호란이라는 참혹한 전쟁 속 연인들의 애절한 사랑과 백성들의 강인한 생명

력을 촘촘하고도 탄탄한 전개, 유려하고도 주옥같은 대사로 그리며 강렬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다. '연인' '파트2'는 10월 중 방송된다.

▶MBC,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미디어 시티'와 MOU 체결

MBC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콘텐츠 공동 개발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UAE '샤르자' 박물관에 '실감 스튜디오'와 '트레이닝 센터'를 함께 구축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

는 교두보를 마련한다.

MBC는 '피지컬 100'과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노하우를 살려, 중동 미디어 시장에 맞는 맞춤형 한류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MBC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행.

기자·PD·방송경영·미디어 엔지니어 등 8개 분야의 2023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행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19일까지다. 채용 절차는 서

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다면심층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에 발표한다.

올해도 '필기 및 면접' 전형을 실시한다. 필기전형 중 1교시는 '기본직무소양평가'다. '기본직무소양평가'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자의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역량을 심층 검증하는 '역량면접'과 1일~2일간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며 모집 분야별 역량을 검증하는 '다면심층면접'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회/원/동/정



▶서경주(편제)
최초의 진화론자며 생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은 세계 최초의 동물백과사전『동물지』 Historia de

Animalibus를 번역, 출간했다. 72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에는 동물의 해부학적 구조와 발생학적인 기관 발달을 연구한 귀중한 결과물이 담겨 있다.



옮겨 방송 전반을 총괄 지휘한다.

▶박성희(관리)

7월 31일자로 송의여자대학교 총장 임기를 마치고 OBS경인방송 부회장으로 자리를



▶이길섭(편제)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콜롬비아 세종학당에서 일하기 위해 콜롬비아로 떠났다. 임기는 2년.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7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김영한(관리) 100만원
- 정광수(기술) 30만원
- 손원록(관리) 30만원
- 故정호준(대구)30만원

- 유재식(관리) 20만원
- 김승월(편제) 20만원
- 정갑표(기술) 10만원
- 김만기(편제) 10만원

- 김세영(편제) 10만원
- 박삼열(관리) 10만원
- 정환웅(편제) 10만원
- 이상범(관리) 10만원

- 김명철(기술) 10만원
- 최조남(관리) 10만원
- 김태홍(기술) 10만원
- 이영철(기술) 10만원

- 이창호(기술) 10만원
- 김정수(관리) 10만원



김영한



정광수



손원록



故정호준



유재식



김승월



정갑표



김만기



김세영



박삼열



정환웅



이상범



김명철



최조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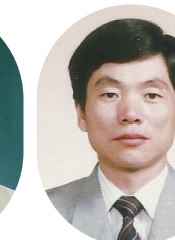
김태홍



이영철



이창호



김정수

경조사항

구순: 강준오(전주) 34.11.01 이영환(기술) 34.11.07

팔순: 이동엽(기술) 44.09.28 원춘재(기술) 44.09.30 박순웅(편제) 44.10.13
이병훈(편제) 44.10.14 임영규(기술) 44.11.07 임두호(기술) 44.11.07
윤상준(편제) 44.11.10

고희: 이연재(보도) 54.10.05 홍석진(기술) 54.10.07 이상진(보도) 54.10.17
최화숙(ANN) 54.10.20 유기철(보도) 54.10.29 김용남(편제) 54.11.15

회갑: 이정식(편제) 63.10.25

결혼: 정영훈(기술) 아들 8/12 이상원(대구) 아들 8/26
김재천(관리) 아들 9/2 선병조(편제) 아들 9/24
최삼규(편제) 아들 10/14 이재원(관리) 아들 10/14

부음: 박성배(편제) 장모상 7/20 김완식(기술) 모친상 7/20
이원표(관리) 모친상 7/26 박우정(보도) 장모상 7/26
한영훈(관리) 모친상 7/30 김종진(편제) 모친상 8/3
오문환(편제) 모친상 8/18

연회비

평생회비: 김소영(보도) 김세홍(편제) 홍성기(기술) 오규택(편제)

2022년: 이기준(관리)

2023년: 김승한(보도) 김종창(편제) 김휘성(기술) 마병두(편제)
문정철(기술) 박문식(대구) 박영선(보도) 성장용(대전)
오순심(편제) 유민환(편제) 이기주(광주) 이시권(편제)
이연구(업무) 이오기(편제) 조정구(기술) 주규만(전주)

2027년: 박삼열(관리)

주소변경 / 신규

편제: 오규택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477(대한대우아파트)

이은규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46번길 67(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보도: 김소영 서울 용산구 이촌로62길 9

업무: 조성식 경기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214-49 (상중리)

관리: 김갑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엠시티오피스텔)

노성석 서울 은평구 갈현로36길 3-10 (갈현동)

송기남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338 (금산상리주공2단지아파트)

신해명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15 (송도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

이보근 인천 서구 독정로 111 (인천검단 엘에이치36단지)

전용립 경기 파주시 운정1길 62-2(야당동)

대구: 서정호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31-23 (평리동)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鄭鎬俊(대구)

5월 16일 별세. 향년 86세.
1966년 전주MBC, 1970년 대구MBC 제작위원, 심의위원 역임. 1995년 퇴사.



李秀克(업무)

7월 31일 별세. 향년 92세.
1961년 업무국 입사. 업무국장 등 역임. 1980년 퇴사.



丁吉勇(보도)

8월 6일 별세. 향년 79세.
1969년 보도국 입사. 보도국장, 홍보국장, 보도이사 등 역임. 1996년 퇴사.



金在洙(관리)

9월 7일 별세. 향년 87세.
1969년 MBC교육국 입사. 총주MBC, 문화관광 등 근무. 1976년 퇴사.

원고를 기다립니다

회보를 만들면서 원고를 청탁했다가 거절을 당한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쓰실만한 분이 냉정하게 사양할 때는 내심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SNS를 통해 많은 글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그 일부를 가져다 신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의 글만 실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우회원들이 읽고서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할만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글은 무엇이든 신고자 합니다.

사진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한 장 반이면 됩니다. 가급적 읽을거리가 풍부한 사우회보를 만드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장 올림.

「회원수첩」에 대하여

사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회원수첩’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줄 압니다. 회원들의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사무처 전화(02-722-7416)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mbcsau.com>)로 들어가서 『회원정보』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얼룩소의 울음소리

1964년부터 1977년까지 아나운서 실장, 연수위원을 지냈고, 전주MBC 상무, 대전MBC 상무, 마산MBC 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 「라디오 게임」, 「증언대의 앵무새」, 「희망의 속삭임」 등이 있고 1969년에 방송문화상을 받았다. 1984년 별세했다.



故 최세훈
(ANN)

1943년 미국에서 창안된 ‘인포메이션 플리즈’ (Information please)가 점령군과 함께 패전 일본에 상륙하자 ‘번안의 명수’인 일본 사람들은 이를 재빨리 「이야기의 샘」으로 바꿔 1946년 12월 3일에 방송을 시작했다. ‘퀴즈’라는 낱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쓰였다. 이 ‘패널 퀴즈’는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천문만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었지만 간헐천(間歇川)처럼 꾸준하지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인포메이션 플리즈’보다 먼저 한국에 귀화해서 갓 쓰고 담뱃대를 문 것은 ‘Twenty Question’였다.

본격적인 오픈 쇼의 원조인 「스무고개」는 ‘삼천갑자동방삭’을 연상시키는 이름 때문인지 비교적 장수했다. 미국 고문관이 처음으로 이 서양 수수께끼의 녹음을 들려주며 이식을 권하자 문제안 PD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애들 장난 같고 수다스럽군요. 방송은 적어도 이보다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긍지를 꺾고 수준 격하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간판은 「스물의 문」 또는 「20계단」 따위가 거론되었으나 직역체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타이틀을 현상 모집했다. 입선자는 없었고 문제안 PD의 머리를 스친 ‘삼천갑자동방삭’의 전설... 마침내 「스무고개」로 이름을 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번창했다. 성명철학은 무기물에도 적용이 되는 것일까?

「스무고개」의 대부 문제안 PD는 뒷날 이 퀴즈 프로그램의 패널로 활약했으니 ‘높은 수준’에 대한 그의 신앙은 완전히 수정된 셈이었다. 「Twenty Question」에서 「20의 비」로, 다시 「스무고개」로 바뀐 타이틀에서 민족성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해방에서 50년대까지 우리나라 방송은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내 기보다는 남의 것을 옮기는 이른바 ‘중역 문화권’에 안주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한테는 일본이 묘포나 시험경작지였다고나 할까. 서양에서 직수입한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정착해 꽃이 피면 우리는 그것을 이식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퀴즈 올림픽」의 원전은 일본의 「둔지 교실」인데 4.19 이후에 「퀴즈 올림픽」은 「재치 문답」으로 신장개업을 했다. 「스무고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패널의 호칭은 ‘박사’였다.

「재치문답」의 바통을 이어 받은 뒤 나는 MC의 영역이 얼마나 넓고 끝없는가를 통감했다. 그 기지와 유머의 경주는 긴밀한 인간관계의 위밍업을 요구했고, 사회자의 기술은 장전된 총의 뇌관을 때리는 격침처럼 날카로워야 했다. 캐리커처로 연역해서 웃음으로 귀납시켜야 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면서 MC는 얼마나 허둥댔는가?

팀 리더 격인 안의섭 씨를 주축으로 강소천 씨의 해맑은 동심, 엄익채 씨의 구수한 인간미, 한국남 씨의 해학, 신동현 씨의 기상천외, 신동문 씨의 봉 쌍즈, 정연희 씨의 현실 참여, 이연숙 씨의 생활인의 지혜, 윤길숙 씨의 상식의 재확인 따위로 분방한 개성의 혼성 합창을 콘서트하던 MC의 손은 늘 떨렸다.

「라디오 서울」의 탄생으로 MBC가 거의 진공 상태가 되고 ‘대이동’으로 과대 표현되었던 그 잔인한 4월에 「재치문답」의 프로듀서와 MC가 나란히 인사동으로 주소를 옮기자 석별이 아쉬웠던 박사들과 재회도 하고 「재치문답」의 고정 팬을 청취율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유모어 대학」을 신설했다.

그러나 인사동에는 오디오리움이 없었고 종로 예식장의 분위기는 패널 퀴즈에 적합하지 못해서 유랑의 무리처럼 머물며 이른바 출장 강의를 했다. 아류는 본디 생명이 짧은 것, 꺼져가는 촛불처럼 번쩍하고 스러졌다. 마지막 불꽃으로 기억될만한 것이 있다면 ‘명수대편’이라고 할까?

「유모어 대학」이 중앙대학교로 출장 강의를 한 것은 1965년 3월

24일, 곧 한일협정 반대 데모로 태풍이 예감되는 기상 개황 아래서였다. 총장실에 브리핑을 하러 들어간 MC를 임영신 여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 시국에 학생들을 자극해서는 안돼요!” 당시의 정국처럼 임 총장은 경직돼 있었다.

“공개가 끝날 즈음 패널들에게 학위를 수여해 주시는 게 이 프로그램의 형식입니다. 어디까지나 조조크죠.”

“뭐라구요? 디그리(학위)? 신성한 아카데미에서 함부로 디그리



임영신 총장

를?”

대학극장은 초만원이었고 ‘최루탄’, ‘학원 사찰’ 등의 시국 풍자가 돋보여서였는지 환호, 박수 갈채가 일렁거렸다. 폭풍같은 반응을 재우느라 오히려 박수 중지 싸인을 하고 있을 때 임 총장이 게스트의 자리에 초연히 들어왔다. MC의 머리는 총장과 학생 사이로 진자운동을 하다가 마치 태엽이 팍 감기듯 긴장했다. 이어폰을 낀 여장부의 표정은 그러나 아이스크림처럼 서서히 녹았다.

마침내 박장대소...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독립운동하던 애국 소녀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뷰로 유도했다. 연줄이 타래에서 풀려나가듯 임 총장의 얘기는 거침없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면

회를 오던 청년과의 로맨스를 박꽃같은 웃음을 머금고 회고할 때 만화가 안의섭 씨가 농을 걸었다.

“그 청년 혹시 시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붓물처럼 터진 웃음... 임 총장은 그러나 진지하고 너그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리고 패널들에게 그 신성한 ‘디그리’를 아낌없이 수여했다. 그리고 중앙대 체육회의 애니버서리였던 바로 그날, 공개방송이 끝나자 임 총장은 다과회의 손님으로 「유모어 대학」 방송팀 식구 모두를 특별 초청해서 환대를 베풀고 따뜻한 체온을 작별의 악수에 담아 주었다.

명수대에서 시내로 들어오자 거리는 삼엄했다. 마침내 위수령(衛戍令) 발동, 녹음 내용에 가해야 할 자율적 규제가 걱정스러웠다. 테이프를 가위질하던 PD는 한 시간 만에 편집을 끝냈다. 시간은 OK라는 것이었다. 불안해진 MC는 테이프를 다시 한번 녹음기에 걸었다.

그 테이프는 희끗하고 불긋한 얼룩소와 같았다. 시국에 역행하는 발언을 도려낸 자리에 소리 나지 않는 Leading Tape을 붙여 냈기 때문이었다.

묵음 - 박수 - 묵음 - 박수... ‘소리가 나지 않는 부분은 상상에 맡긴다’는 그 기상천외의 편집 장치에 펄쩍 뛰자 신인 PD는 혈압이 높아졌다.

“와 파이라 카노? 신문도 삭제하도 이래 안되나?”

녹음 편집을 신문 제작에 견주는 놀라운 비교 정신을 부드럽게 다스리고 MC는 가위질에 협동했다. 창밖으로 무장 군인을 가득 실은 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다.

(MBC가이드 1982년 4월호에서 옮김)



아프리카 여행기



이영삼(편제)

내 '버킷 리스트'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뒀던 아프리카 여행.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25일간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7개국(케냐,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을 다녀왔다.



▶ 케냐

인천에서 9시간 반 정도 걸려서 두바이공항 도착, 6시간 기다렸다가 케냐항공으로 4시간 10분 비행 후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나이로비 공항에서 사파리 투어 차량으로 8시간을 달려 국립공원 마사이마라 캠핑장 도착.

마사이마라 원주민들의 전통춤을 관람한 뒤 숙소에 짐을 풀었다. 그런데 샤워기에서 검붉은 녹물이 나오다가 하면 양변기에서는 검은 물이 나오고 세면대에서는 물이 그나마 졸졸 나와 세수도 어려웠다.

아프리카는 지금 겨울이다. 낮에는 22~24도지만 해가 지면 12도~14로 떨어지는데 냉, 난방시설은 전혀 없었다. 미리 준비한 캠핑용 침낭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다음 날 '사파리 게임 드라이브' (야생동물을 차량으로 찾아다니는 뜻)를 했다. 넓은 초원이라 드라이버들은 무선 송,수신기로 동물들의 출현을 공유하고 그곳으로 빠르게 달려가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 이틀간의 사파리 투어에서 첫날은 얼룩말, 기린, 누, 코끼리, 임팔라 등을 봤고 둘째 날은 사자, 하이에나, 타조, 악어, 하마, 레오파드 등을 만났다. 야생동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왔다는 실감이 뚜렷했다.

▶ 탄자니아

나이로비에서 탄자니아 국경까지 3시간, 입국장에서 비자 받는 시간이 2시간, 그리고 포장도로로 3시간 정도를 더 달려서 킬리만자로 산 기슭에 위치한 모시에 도착했다. 다음 날 여행은 선택 사항이었다. 하나는 킬리만자로 중간 전망대 트래킹이고 다른 하나는 마테루니 폭포와 원두커피 농장, 찜찜운 천을 가는 코스였는데 일행들이 나흘 동안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두 번째 코스를 선택했다.

다음날 항공 편으로 잔지바르로 이동했다. 잔지바르는 Zanzi(검다) bar(사주해안)의 복합어로 '검은 해안'이란 뜻이다. 잔지바르 관광은 스파이스 투어, 프리즌 아일랜드, 돌핀 투어, 사파리 블루 투어 등이 있는데 일행 중 중년층은 프리즌 아일랜드섬(거북이 목장)을 3시간 정도 관광했다.

둘째 날은 노예시장 유적지와 스톤타운 시내 관광을 했고, 셋째 날은 지상 최고의 해변이라는 '능귀'로 이동해 민속춤을 관람했다. 다시 스톤타운으로 복귀해 페리를 타고 다르에스살람으로 이동한 후 호텔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4시 25분 에티오피아 항공편으로 짐바브웨 빅토리아 공항까지 8시간 걸려 도착했다.

▶ 짐바브웨

공항에서 '카자 유니 비자'를 2시간 반 걸려서 받았다. '카자 유니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 날부터 잠비아와 보츠와나를 횡수 관계없이 왕래하기 위함이었다. 먼저 잠베지강(빅토리아 폭포 상류) 선셋크루즈를 하며 하마, 악어 등을 보고 붉은 석양에 담긴 낭만을 느꼈다.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와 잠비아 국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원주민들은 빅토리아 폭포를 '모시오아투나' 즉 '천둥소리가 나는 연기'라고 불렀다고 한다. 상공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구경하는 헬

기 투어를 마치고 잠비아 쪽 폭포를 먼저 보려고 국경을 넘어가 2시간 걸려서 웅장한 폭포를 구경하고 다시 짐바브웨로 넘어와 이쪽 폭포를 구경했다. 잠비아에서 보는 것과 짐바브웨에서 보는 느낌은 전혀 달랐다.

▶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초베국립공원은 세계적인 코끼리 서식지다. 보트를 타고 초베강을 따라 진행하는 해상 사파리와 육상사파리가 있는데 우리는 해상사파리에 도전했다. 습지와 늪지대로 다니며 하마, 악어, 코끼리, 물소(버펄러) 등을 봤다.

다음 날에는 보츠와나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 관광수도 '마운'으로 10시간에 걸쳐 육로로 이동했다.

다음 날, 모래사막을 지나 오키아방고 델타 습지대에 도착해 2인용 카누를 타고 습지대로 들어갔다. 습지에서 서식하는 하마 울음소리도 직접 들었고 이글 피쉬 등을 보고 늪지대 안에 내려서 중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후 다시 카누를 타고 육지로 나와 호텔에 도착했다.

▶ 나미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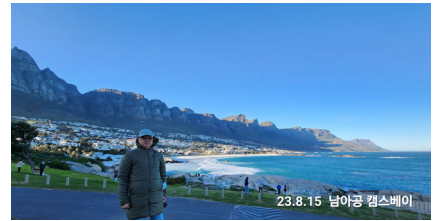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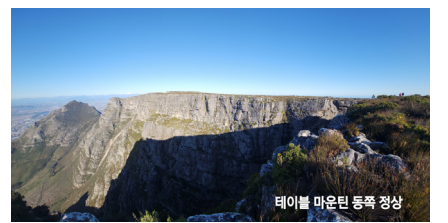
16일 차에 보츠와나 마운 공항을 출발해 요하네스버그를 경유, 나미비아 빈툭에 도착했다. 다음 날 오전, 약 3시간을 달려 나우클루프 캠핑장에 도착해서 Sesriem Canyon을 1시간 동안 구경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작은 것에 실망했지만 사막에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17일 차에는 사막의 모래 산으로 세계 최고 높이인 소수스블레이의 둔45에 올라가서 해돋이를 하려고 했는데 안개 때문에 앞이 안보여 중도 하차했다. 과거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데드블레이"로 이동하여 2시간 동안 넓은 사막을 관광하고 캠핑장으로 돌아와 모래 먼지를 들이 마시며 6시간 달려 밤늦게 스와콕문트 숙소로 도착해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잠들었다.

다음 날에는 사막 4륜구동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관광을 하면서 카멜레온도 봤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케이프타운)



20일 차 '왈비스베이 항구'에서 홍학 서식지를 구경한 뒤 왈비스베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

캠스베이→Hout Bay(물개가 있는 항구도시)→Noordhoek Long Beach(긴 해변가를 자랑하는 도시)→희망봉→볼더스 비치(작은 펭귄서식지)→테이블마운틴(정상이 테이블처럼 평평한 산) 관광과 시티투어를 했다.

버스투어를 하다가 보고 싶은 곳에서 내려 관광하고 다시 탈 수 있는 자유권을 구입해 먼저 블루라인을 타고 커스텐보쉬 식물원을 둘러보고 이어서 와이너리를 방문해 120랜드에 5가지 와인을 맛봤다.

원숭이와 새들의 동물원을 보고 다시 블루라인을 타고 워터프론트에 도착해서 씨푸드 저녁 식사를 했다.

23일 차는 레드라인을 타고 시내를 관통하여 테이블 마운틴을 경유해서 다시 워터프론트에 도착, 4시간 반에 Sunset 버스를 타고 테이블 마운틴 건너편 정상으로 올라가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하고 케이프타운의 맛있는 야경 구경으로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나를 닮아서 정말 미안해



이우호(보도)

어느 집 부부나 그러지 않을까. 아이들한테서 좀 별난 성격이나 습성이 보일 때면 ‘누굴 닮아 저러지?’ 하는 것. 우리 집도 마찬가지다. 여리고 수줍음을 잘 타는 아이들은 해야 할 말을 밖에서 다 못하고 집에 와서야 털어 놓는다. 그럴 때 아내는 나를 흘깃 쳐다본다. 무슨 뜻인지 안다. ‘그래도 난 한 방이 있어. 그렇게 여리지 않다고’ 나는 속으로만 그러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스틸 파이팅 잇 Still Fighting it〉이란 노래가 있다. ‘벤 폴즈’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만들었다. ‘힘겨운 세상, 계속 싸워나가야 해.’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듣다가 나와 아내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음악 프로를 보다가 눈물이 난 건 처음이다. 노래에 나온 아들이 우리에겐 딸로 들렸다.

아들아, 해 줄 말이 있어.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고난의 연속일 거야.
그래도 우린 계속 싸워나갈 수밖에 없단다.
그리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목이 나온다.
너는 참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You're so much like me)
그래서 미안해(I'm sorry)

베이스 기타를 치던 청년이 고개를 뒤로 돌렸다. ‘아버지가 하루에 주사를 일곱 번이나 맞으며 투병 중’이라는 그는 연주하면서 울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심사위원 윤종신은 목이 메는지 한참 만에 심사평을 했다.

“제 인생관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불행한데 조금이라도 덜 불행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는 ‘나를 닮아 미안해’ 대목에서 울컥 올라왔다고 했다. 아들이 자신의 어린 감성을 닮아 험난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지, 하는 걱정. 그래서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다. 우리 부부도 그랬다. ‘나를 닮아 미안해’ 소절이 계속 귓전을 맴돌았다.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냈다가 아이들의 어릴 때 사진을 보았다. 99년 7월 16일 날짜가 찍혀있다. 그늘 없이 맑은 얼굴의 환한 미소.

그때 아이들은 그 후 20년간 펼쳐질 삶의 행로가 험하고 고통스럽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작은 딸은 어릴 때 엄마를 닮아 명랑했다. 아빠를 닮아 노래도 잘 불렀다. 여섯 살 때 즉흥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흥얼거리곤 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자마자 신경질적인 담임을 만나면서 ‘선생님에 대한 환상’이 금방 깨졌다. 그 교사한테 억울한 오해를 받아 심한 야단을 맞은 뒤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성정이 어려서 그런지 충격이 컸나 보다. 그때 입은 상처는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선생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생긴 거 같다.

특파원이던 아빠를 따라 미국에 갔을 때는 얼굴이 좀 밝아졌다.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학교에서 드센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다. 그 애들은 ‘미국 살다 와서 그렇게 잘났냐’는 비아냥에 언어폭력도 가했다. 학교에 가는 아침마다 아이의 어둡던 표정이 기억난다.

중학생 때라면 친구와 한창 수다를 떨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 나이다. 함께 할 친구가 없던 작은 딸에게는 그때가 외롭고 우울한 시절로 남아있다. 아이는 노래를 듣고 부르는 걸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다가 뮤지컬 배우나 가수를 꿈꾸며 연극영화과에 들어갔다.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당찬 기질이 없으면 뚫고 나가기 어려운 길이었다.

무엇보다 누구한테도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강박감이 길을 막았다. 꿈을 일단 접고 다른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했다.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도 의지

할 친구도 없었던 게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지 않았을까.

큰딸은 방랑자 기질이 있는지 한 가지 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원래 영화감독 되는 게 꿈이었다. 어린 날, 아빠랑 영화를 많이 봤던 영향을 받은 거 같다.

근데 감독 밑에서 연출부 생활을 해보고는 장난이 아니란 걸 금방 깨달았다. 여럿한 성격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다. 연출 대신, 해외 판매 업무로 미련을 달랬다.

그러다가 영화사 일을 그만두고 스웨덴으로 떠났다. 호텔 식당에서 접시 나르는 일로 ‘워킹 홀리데이’를 보내면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단편영화도 만들었다.

2년 만에 돌아와서도 방랑은 그치지 않았다. 그래도 요즘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는 기미가 엿보인다. 그 애는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듯하다.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을 같이 보다가 그냥 물어봤다.

“너희들, 이때로 돌아가고 싶니?”

“아뇨. 절대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큰 애가 정색을 했다. 작은 애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다.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20년을 또 보내야 한다고요? 그런 표정이었다.

입시와 취업, 관계 맺기의 어려움, 정체성의 상실, 행복 찾기에 대한 자신 없음. 그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온 듯했다. 넘고 넘어야 했던 험한 고개. 나를 닮은 딸들에게 더 가파른 길이었을 거다. 그런 데도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 주고 있었던가.

「아버지와 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2000년 아카데미상을 비롯해 국제 영화상을 휩쓴 네덜란드 작품이다. 9분짜리 단편인데도 감동이 길게 남았다.

왈츠 곡 〈다뉴브강의 잔물결〉이 흐르고, 아빠는 강가에서 딸을 껴안고 이별의 입맞춤을 한다. 나룻배에 올라, 강 건너 멀리 떠난 아빠

는 오래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불고 자전거 탄 소녀의 가는 길이 험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중년이 되고 할머니가 되었지만, 날마다 찾아간 강가에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딸은 아버지를 찾아 물속으로 들어간다.

환상인지 저세상인지 버려진 나룻배가 보였다. 배 안에 들어가 잠든 딸은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한다.

하염없이 기다려도 아버지는 오지 않고 기러기만 날던 강가. 그 허허로운 강가는 내가 관심을 주지 못했던 두 딸의 허전함을 은유하는 듯했다. 웅한 마음을 달래주고 용기를 심어줬으면 하던 때 아빠는 어디 있었나, 뒤늦은 성찰을 했다.

닮은 건 유전적 인자만이 아니다. 같이 살면서 보인 내 습성과 생각도 닮아갔을 거다. 별로 활동적이지 않은 모습도 그렇고,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그렇다.

밖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쌓인 것들을 안고 들어와 한탄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활달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하는 데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다시 〈스틸 파이팅 잇〉 노래로 돌아가 보자. 아빠는 아들에게 또 말한다.

20년이 지나 너와 맥주를 한잔하게 되면 말하겠지.

곳은 날도 맑은 날도 있었지만 지나간 세월은 고통이었다고.

그래도 우린 계속 싸워나가야 해. 그리고 여운이 남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면 너는 어느 날, 내게서 멀리 날아가 있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두 딸에게 말한다.

“애들아, 너희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 너희들만의 날개로 날아가겠지. 맑고 푸른 하늘만 지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니.

갑자기 몰아치는 비바람과 천둥번개를 만날지도 몰라. 엄마 아빠는 눈을 감는 날까지 간절히 바랄 거야. 너희가 잘 날아갈 수 있기를.

애들아. 나를 닮아서 정말 미안해.”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 文化書院 최상철 씨



“사장님이라고 안 그러구 그냥 ‘아저씨’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편해요. 사장은 뭘 사장이에요” 대접해 드린답시고 ‘사장님’이라 불러드렸다가 한 말씀 들었다. 나 역시 예전처럼 ‘서점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긴 했다. 세월이 흘렀어도 ‘아저씨’라는 말이 주는 편안함이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문화서원 주인 최상철 씨’. 요즘 사람들은 너나없이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러준다는데 살갑게 느껴지진 않은 듯했다.

MBC에 다닐 때, ‘구내서점’과 ‘도서실’이 있어 뿌듯했다. 서가書架 앞에 서면 그냥 좋았다. 하지만 10여 년 전쯤 도서실은 사라졌고, 2년 전에는 서점마저 지하층으로 내려갔다. 상암동 MBC몰 지하 1층, 20평 매장에 1,000여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외진 곳이라서 그런가. 내가 방문한 그 날 오후 5시부터 6시 반 사이에 손님은 단 한 명. 그것도 들렀다 그냥 나갔다. 아저씨가 했던 말을 또 한다. “아까 정동영 前 장관이 다녀갔어요” 사우들이 회사에 들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더러 찾아오는 모양이다. 허긴 나름의 추억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문화서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박사월이 쓴 “김형욱 회고록”이 은밀하게 나돌던 5공 시절이었다. 소식이 빠른 한 선배가 귀띔했다. “(정동 MBC) 9층 서점에 가면 그 책이 있다”고. 아저씨는 보물 감추듯 숨겨놓은 책을 책상 아래서 꺼내 주었다. 남몰래 봐야만 할 것 같아 아내도 모르게 밤늦게 읽곤 했다. 김 산의 ‘아리랑’도 그분에게서 샀다. 불온(?)서적을 팔다 화를 당하면 어쩌나 염려하면서 한없이 암전하게만 보이는 아저씨가 저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걸까 궁금하기도 했다. “그거요?, 그때 누가 몇 권 갖다

놔서 판 거예요. 몇 분밖에 안 사셨어요. 내놓고 팔면 잡혀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죠. 신경 안 썼어요. 용기고 뭐고 뺏도 모르고 판 거예요. 요즘 누가 그런 말 하던데요. 바보들이 용감하다고 허허허.”

아저씨가 MBC에서 처음 책을 판 건 1984~85년 무렵 정동에서 부터다. 9층 식당 입구에 좁은 매장이 있었다. 거기에 식권 판매대가 있고 DP점도 있었다. 마을금고에서 ‘책 몇 권 갖다 놔 보라’고 해서 시작했다. “스무 권 정도 놓고 팔았는데 별로 팔리지 않았어요.” 내 기억보다 훨씬 적은 숫자다. 그의 겸손한 말버릇 때문에 약간은 부풀려 들어야 할 거 같다. 세무서에 정식으로 서점 등록한 건 88년 여의도 시절. 당시 구내서점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지레 접었다. “저는 안될 꺼라고 생각했었어요, 교보문고도 응모하는데 내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니까 담당자가 저더러 한번 넣어보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왔죠.” 직원복지 차원에서 20% 할인 판매 조건으로 서점을 열었다. 박근학 총무국장이 인사부 이순임 씨에게 부탁해 그럴듯한 현판도 만들었다. 전서체篆書體로 ‘文化書院’이라 쓴 액자를 벽에 걸어놓으니 분위기도 살아났다.



내가 문화서원에 맛을 들인 이유는 첫째, 책값이 다른 곳에 비해 싸다. 둘째, 무슨 책이건 주문하면 바로 갖다 줬다. 셋째, 문화카드로 결제하니 편했다. 넷째, 점심이나 퇴근길 약속 장소였다. 많은 사우들의 만남이 이뤄졌던 그곳에서 아저씨는 MBC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

“파업할 때마다 있잖아요, 저야 자세한 속내는 잘 모르지만 ‘저렇게 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파업이 끝나면 다들 열심히 일해서 시청률도 올라가고 결과도 좋고 그러더라구요. ‘MBC 직

원들은 참 능력도 있고 끼도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허허” ‘여의도 손님과 상암동 손님이 차이가 나냐고 물었다. “여의도 때는 정치, 사회, 마스크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소설, 에세이집 같은 책들이 많이 팔려요. 그리고 전에는 책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인지 책들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요즘 세대의 독서 취향을 직접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두운 표정의 아저씨 얼굴을 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은 ‘그동안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한 걸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짐짓 “혹시 화를 내본 적이 있어요?”라고 물었다. “아침마다 회사로 출근하면서 항상 긴장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화난 적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큰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속으로 삭였죠” ‘진상 손님’은 없었냐고 재차 물었다. “MBC 직원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요즘도 그래요. 먼저 고개 숙여 주셔요. 항상 송구스럽고 고맙죠” 아저씨의 수줍은 얼굴이 환하게 퍼졌다.

“저는 MBC를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제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던 게 다 MBC 덕이에요. 방송사 직원들이 상당히 하이클래스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라 매일 매일 많이 배웠어요. 엄기영 사장님 땀가요, 어떤 직원 분이 오셔서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시청률이 떨어져 광고가 줄어든다고요. 많이 안타까웠죠. 그후로 버스를 타면 MBC라디오를 켜놓고 있는 운전기사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허허” 예쁜 딸이 서점 일을 거들던 기억이 떠올라 안부를 물었다. 결혼해서 의정부 산단다. 남편은 목사. 외손주는 초등학교 5학년. 아저씨는 30여

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과 단둘이 산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침, 점심, 저녁을 MBC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구내식당 밥을 가장 많이 먹어본 사람일 거’라며 웃었다. 식사하러 가자고 했다. 주간 메뉴를 살피더니 고개를 젓는다. “쇠고기 생채비빔밥이네요. 저는 비빔밥이 별로예요” 그래도 식사했다. 식감이 살아있는 신선한 식재료, 알맞은 간, 셀러드 드레싱도 신선했다. ‘맛있는 건 강식’의 느낌 그대로다. 여의도 때 보다는 못하다는 말도 있지만 상암동 MBC의 구내식당 맛은 훌륭했다. ‘참 좋은 회사 MBC’의 대단함이 살아있다.

서점에서 책들을 둘러 보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건 비단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득 애사심愛社心만으로 말하자면 내가 저분보다 더 낫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MBC의 안팎에서 MBC를 떠받쳐온 많은 분들이 새삼 고맙다. 마지막으로 물었다.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언제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는 날까지는 ‘MBC책방지기’로 충실하게 살고 싶네요, 허허”

그렇고 말고요. ‘종지기’, ‘등대지기’처럼,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켜주면 좋죠. 마을 앞 장승처럼, 정자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서 웃는 얼굴로 사우들을 맞아주시면 참 좋겠어요. ‘고향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통 크게 덕을 낸 부영건설 회장처럼 나도 한 말씀 드린다.

“文化書院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담.정리 김승월)



고려산 진달래



한윤희
(관리, 감사)

〈詩作노트〉

어떤 사건은 처음 먹던 고래고기의 질겼던 기억처럼 세월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게 있다. 유난히 가물어 눈에 웅덩이를 파 놓았던 어느 해, 어머니는 그 웅덩이에 일곱 살 아들을, 나는 동생을 잃었다. 큰 슬픔은 울음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법이다. 어머니는 날마다 양가슴을 두드리다 수시로 토하셨다. 한 움큼 소다를 삼키곤 다시 토하곤 했다.

강화 섬 가운데쯤. 혈구산과 고려산이 품고 있는 국정 골. 봄이면 산이 붉었다. 진달래가 살아남아 해마다 꽃을 피웠다. 어떤 땀 잉결불같이 활활 타오르기도 했다. 어머니는 불타는 산을 끝내 보지 않았다. 천한 들것에 자식 묻은 그 산을.....

아버지

나무 베러 가다가 쉬던 그 언덕배기가
온통 진달래 동산이네요

높고 험해 남겨놔던 등걸들이 자라
이런 장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그렇게 보고 싶다던 고려산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동생 묻힌 건너 남산도 온통 연분홍빛이네요
봄이면 쳐다보지도 않던 그 산 말이에요

어린 걸 상여도 없이 들것에 실어
당신의 가녀린 오목가슴에 묻고 사셨으니
단장의 고통 어찌 견디셨나요

진달래가 보고 싶어 고려산을 찾았는데
꽃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왔는데

그 붉은 꽃 앞에 난
당신들이 그리워 목이 맴니다

문화방송(MBC) 사우회

동화인협동조합
DONG HWA IN COOPERATIVE

문화방송(MBC) 사우회의 상조는 동화인협동조합과 C&G라이프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100%** 후불제 상조



1등 서비스



전문인력



고객안심



경제적

C&G라이프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장례를 책임지는 의전 전문 회사입니다.

사우회 상조관련 문의
010-8761-6643

전국 24시간 대표번호
1544-4744